

2003년 3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를 선정하며

<출판저널>은 재창간호였던 2003년 2월호부터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출판저널>의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는 역작에 대한 출판전문지의 관심을 표명하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선정작과 선정 후보작이 널리 읽히기를 바라는 <출판저널>의 완곡한 의사 표시에 다름아니다. <출판저널>은 외부에 선정위원이나 추천위원을 따로 두지 않고 오로지 <출판저널> 기자들의 눈만으로 선정작을 고른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는 외부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을 바라보는 <출판저널> 기자들의 눈

과 가치관을 정립하겠다는 의지의 결과였다. <출판저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회의를 거쳐 지난달 허만하의 《길과 풍경과 시》(솔출판사)를 첫 번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로 선정했다. 이 책은 이후 출판계 안팎의 비상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출판저널>은 소신을 가지고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출판저널>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에 대한 공정성과 권위를 독자 여러분께 물으면서 이 작업에 출판인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다린다.

미국의 위선적인 본질 파헤치는 시의성 있는 책

<출판저널> 2003년 3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회의는 안타까움 속에서 시작됐다. | 눈에 띄는 신간이 전월에 비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신학기철을 맞아 단행본 출판이 학습지 출판의 활황세에 밀려 다소간 위축된 결과로 보였다. |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위원회(<출판저널> 취재팀 5명)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출간된 책을 대상으로 후보작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1차 선정회의는 지난 2월 12일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각각의 특장과 의미를 담고 있는 책 열세 권이 1차 후보작으로 추천되었다. 선정위원들은 이 책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다섯 권을 2차 후보작으로 올렸다. 2차 선정회의는 2월 15일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섯 권의 책은 하워드 진의 《전쟁에 반대한다》(이후), 정창권의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사계절), 강영조의 《풍경에 다가서기》(효형출판), 김영두의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소나무), 김열규의 《왜 사냐면, ...웃지요》(궁리) 등이었다. 한국인의 웃음, 그 내력과 그 속에 들어 있는 미학을 다양한 동서양적 코드로 해석한 김열규의 《왜 사냐면, ...웃지요》는 노학자의 탐구 정신이 돋보이는 책이라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 책은 저자의 전작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국 정신사의 원류를 복원하는 작업이어서 주목을 요한다는 평도 뒤따랐다. 한국 유학계의 두 거목인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주고받은 편지를 상세한 주석과 함께 엮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는 26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자신의 성찰과 발전을 도모한 조선시대 선비의 유연하면서도 고결한 정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는 고평을 받았다. 《풍경에 다가서기》는 전문적이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튀워주는 책이라는 평과 함께 풍경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요구하는 독특한 풍경미학 입문서라는 평이 뒤따랐다. 미암 유희춘이라는 조선 중기 관리의 11년 동안의 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쓴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는 16세기 양반 가정 혹은 공직자의 일상 생활사를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는 보기 드문 텍스트라는 평이 있었다. 최종 후보 다섯 권 중 유일한 외서였던 《전쟁에 반대한다》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반전운동의 의미와 맥락을 미국 좌파의 시각에서 짚어보게 하는 시의적절한 저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선정위원들은 이상 다섯 권의 책을 놓고 진지하면서도 열띤 논의를 펼쳤는데 결국 하워드 진의 《전쟁에 반대한다》를 3월의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로 선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 하워드 진이 미국이 수행했던 전쟁들의 성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마키아벨리즘에 입각해 있는 미국의 위선적 본질을 파헤치고 있는 책으로, 현재 미국 부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팩스 아메리카나 전략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책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